



通德郎 諱 繕께서 조카 祖東(號 春查)에게 보내는 편지

(皮封) 春姪奉謝

前見問書每緣忙擾闕後至此可歎相兒來得聞侍奉餘做況平善欣慰不已
第今番父主初度汝亦不來雖緣勢之然一家會少一之歎如何哉唯望君與
長兒相勸勤讀以爲他日刮眼可也餘不盡姑希照之

巳月初旬仲叔

번역

(피봉) 춘(春) 조카에게 감사함

앞서 문안편지를 보았으나 늘 바쁘고 시끄럽기 때문에 후신(後信)을 꺾후(闕後)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한탄스럽다. 상아(相兒)에게 전해 들으니, 띄우고 받들면서 지내시는 근황(近況)이 평선(平善)하다니 혼위(欣慰)하여 마지않는다. 그런데, 이 번 아버님 생신에 너도 오지 않았으니 비록 사세(事勢)가 그러하였기 때문이나 온 집안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빠지니 한탄스러웠다. 오직 그대와 장아(長兒)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권하여 부지런히 독서(讀書)함으로써 후일(後日)에 괄목(刮目)할 만하게 성취(成就)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쓰지 못하고 이만 조감(照鑑)하기 바란다.

사월 초순에 중숙(仲叔)이 쓰다.

巳月은 月辰임